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에 참여하세요



✿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들이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 대상

- 튜터 교·사대생 및 일반대생
- 튜티 초·중·등학교 학생(특수학교 포함)

✿ 참여 방법

- 튜터 소속 대학 모집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통해 신청
- 튜티 단위학교(초·중·고교) 계획에 따라 담임 등 담당교사에게 신청

✿ 튜터 인센티브

근로장학금(시간당12,500원) 지급,
대학의 관련 계획에 따라 교육봉사
활동 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 인정 가능

✿ 운영 기간 '22년 3월~'23년 2월

✿ 문의처

소속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290

06 네 꿈을 펼쳐라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독도사랑 크기만큼 성장하는 우리들'

10 에듀피플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다할 것"

42 교육포커스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46 진로직업인

박석중 (사)한국드론산업협회장
하늘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드론 전문가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5

vol.478 2022 MAY

COVER STORY

‘우리가 사랑한 독도 우리가 지키자’ 고창 영선중학교 자율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학생들이 독도에 관한 관심을 호소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작은 관심 모아 독도를 함께 지켜요~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조재익
사무관 이인숙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양아라, (객원)김혜진, (객원)이경화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학생이 떠난 학교,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

16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찾아왔다

21

폐교에 동지를 둔 청년들, 농촌에서 미래를 그리다

24

생태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발견

28

폐교의 무한변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탄생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함양 안의중학교
‘행복교육’이 가져온 농촌 작은학교의 변화

06 네 꿈을 펼쳐라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독도사랑 크기만큼 성장하는 우리들’

10 에듀피플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다할 것”

32 정책을 말하다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상생모형 구축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36 교육웹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더 안전하게~

38 교육자치시대

강원도교육청
행복한 삶과 진로설계를 위한 ‘청소년인생학교’

41 이달의 교육뉴스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外

42 교육포커스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46 진로직업인

박석종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장
하늘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드론 전문가

50 체험! 진로현장

하늘을 나는 드론을 만나보아요!

52 일상의 씬표

고려 삼별초의 마지막 격전지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56 교실혁명

메타버스로 만드는 우리들의 교실

60 명예기자 리포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62 혼자보기 아까워서

64 독자마당



함양 안의중학교

‘행복교육’이 가져온 농촌 작은학교의 변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에 선정된 함양 안의중학교(교장 박영진)는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1인 1악기, 예쁜 손글씨 쓰기, 행복한 농장 등 ‘행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알찬 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줄어들던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2009년 이후 12년 만에 3학급에서 5학급으로 증설되며 학교도 고무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안의중학교를 찾았다.

글 _ 편집실

악기를 연주하며 경청을 배우는 아이들

지난 4월 11일 4교시, 안의중 2학년 1반 학생들이 잔디밭 운동장에 둘러앉았다. 학생들은 ‘안의중학교’라고 새겨진 기타를 메고 조율하고 있었다. 1년에 2~3번씩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학생들은 교실을 나와 야외수업을 받는다. 이날 음악 시간에 배울 곡은 장범준의 ‘벚꽃엔딩’.

김준(음악과) 교사는 “애들아, 친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기타 코드를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손끝에 집중하며 기타 선율에 귀 기울였다. 합주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호흡하며 함께 하는 것.

“기타 실력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올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 친구들의 연주를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합주할 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함께 바꿀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경험하면 경청의 자세가 생겨 생활에서도 연장되더라고요.”

김준 교사는 악기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안의중은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자, 노력을 통한 성취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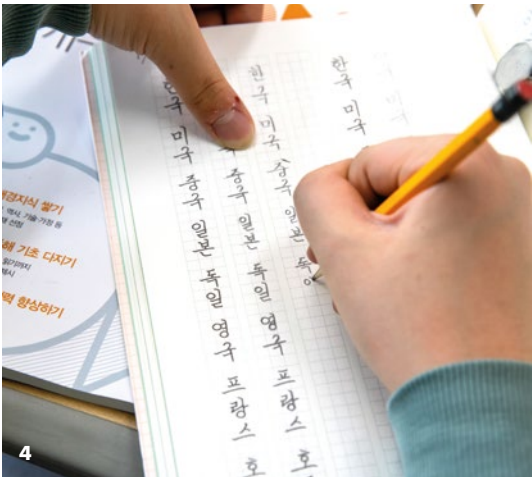
학생들은 음악 수업 외에도 방과 후에 ‘브라스앙상블’을 통해 악기를 배운다. 브라스앙상블은 트럼펫, 트롬본, 유포니움, 호른, 튜바,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지역 관현악단 등 강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악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 88명 중 60여 명이 브라스앙상블에서 악기를 배우며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평소 갈고닦은 실력은 연말 학교 축제와 정기연주회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브라스앙상블은 2019년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앙상블부 학교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하지운(3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악기를 다룰 줄 몰랐는데,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악기도 배우고

12 음악 시간 안의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3 전교생 88명 중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브라스앙상블





4 필사하며 손글씨를 교정하는 학생들
5 100평 규모의 학교 농장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한다.
6 안의중학교 전경

실력도 키울 수 있었다. 악기를 배우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음악 분야에 관심도 생겨났다.”라고 말했다.

개발새발 글씨에서 명필로 거듭나는 시간

또 다른 수업. 1학년 1반 교실에서는 필사하는 학생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빨리빨리 쓸 필요 없지? 예쁘게 적어보자.” 박혜정(국어과) 교사의 말에 학생들은 필사책에 연필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다. 박혜정 교사는 “글씨체를 못 알아볼 정도의 악필인 아이들이 있다.”라며 “글씨체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고유한 식별 도구로 종이에 글씨를 써본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글씨체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글씨체 교정뿐만 아니라, 글씨를 대충 쓰려는 자세를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글씨체를 완성하게 된다.

필사책에 정성스레 손글씨를 적고 난 후,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학교 온라인카페에 사진을 올렸다. 각자의 게시판을 클릭하면 시간 흐름에 따른 자신의 손글씨 변천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수빈(3학년) 학생은 “친구들의 글씨체가 점점 나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학교 차원에서 필사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옮겨 적는 대회로, 자신만의 글씨체를 선보이는 동시에 사색의 시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안의중은 예쁜 손글씨 쓰기와 더불어 종이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교생이 함께 아침 독서를 해오고 있다. ‘행복한 책 읽기’ 활동은 독서 습관을 정착시키고 공감과 소통, 경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함께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독서일지를 쓰고 있다. 김은영(3학년) 학생은 “아침 독서를 하면서 도서관 이용이 늘어났으며 책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의중은 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100평 규모의 ‘행복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곳 농장에서 상추, 깻잎,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수확한 농작물은 종종 급식 반찬으로 제공된다.

농작물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농촌의 소중함과 농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식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위대함, 수확의 즐거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다

이처럼 안의중은 학생들에게 1인 1악기, 예쁜 손글씨 쓰기, 행복한 농장 등 ‘행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알찬 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줄어들던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2009년 이후 12년 만에 3학급에서 5학급으로 증설되며 학교도 고무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영진 교장은 행복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교육 전략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의중의 학생 수는 88명으로 이 중 30%는 대구, 진주, 남원 등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 안의중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 독서실을 개방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식사를 제외한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5명이 ‘제2의 집’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안의중은 도농 연계를 통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진 교장은 “5월경 서울 도곡중학교와 협약을 맺고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생태환경교육 취지에 맞게 ‘종이 없는 학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안의중학교는 도곡중학교와 함께 생태, 환경, 역사, 스포츠 등의 교환학습은 물론이고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❷



Mini Interview

박영진 교장

행복 교육프로그램의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

배움과 학습은 항상 노력에 동반되는 수고라는 것이 뒤따르기에 학습자가 즐겁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수고와 고통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어들거나 제거될 수 있기에 ‘행복한 노력’이 발생한다. 노력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공부와 노동이 놀이가 되는 법이다. 행복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교육 전략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의중학교의 강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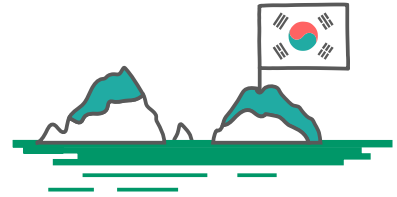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저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도 하고, 저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바꾸기도 한다. 선생님들도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학생들을 위해 결정했으면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어떤 일을 불가피하게 실행해야 하는 경우, 학생회에 위임하여 학생들의 결정에 따른다. 학생들도 교장실에 와서 교복 문제, 점심시간 등 자신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건의하기도 한다.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독도사랑 크기만큼 성장하는 우리들’



독도 제대로 알기가 첫걸음

영선중학교 자율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하 동독우)은 2012년 독도동아리로 첫발을 뗐다. 대학 시절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이재환 교사를 주축으로 동아리를 결성했다. 처음에는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목표였다. 학생들은 매주 모여 각자 독도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며 독도 사랑에 눈 뜨게 되었다. 이재환 교사는 “역사 왜곡의 적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내 주변부터 이 같은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8년 동독우의 ‘독도 알리기 100일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여기서 부터였다.

동독우는 교내에서도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에 독도벽화, 독도계단띠 설치 및 독도 심벌마크 오디션과 그리기, 글라스 페인팅을 통해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독도 수업의 날을 정해 ‘독도는 우리 땅’ 6행시 짓기 및 독도골든벨, 교내 학술 대회를 진행하는 등 독도 알리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내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다음에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 서울 독도체험관을 견학하고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길거리 홍보도 진행했다. 이 같은 학생들과 교사의 노력은 2018년 ‘전국 중·고 독도체험발표대회’ 최고상인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직접 영선중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했다. 당시 서 교수는 “누구나 독도를 지키는 외교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현재까지도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단다.

최근에는 전국의 독도체험관을 견학하면서 오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국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독도체험관이 곳곳에 있는데 서울, 경기, 세종, 전남 등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다니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방문해 영문 표기가

최근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전반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전제하에 관련 기술을 늘리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역사 왜곡을 위한 물량공세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되는 요즘 독도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교장 한혜순)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하 동독우)’ 학생들을 만났다.

글_ 편집실

“전국의 독도체험관을 견학하면서 오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생들은 경기도 수원 광고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방문, ‘Dokdo Island’를 ‘Dokdo’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 1 영선중학교 자율동아리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학생들이 SNS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다.
- 2 12명의 부원들은 함께 독도를 배우고 독도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Dokdo Island’라고 되어 있는 것을 ‘Dokdo’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남 여수의 독도체험관에서는 독도에 있는 바위들의 이름을 영어로 명확하게 표기할 것과 자료의 연도를 보다 정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상에 독도를 알리는 우리 ‘독도지킴이들’

“울릉도와 독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있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섬들이 군사적으로 쓸모가 있었어요.” 정다원(3학년) 학생은 “러일 전쟁의 승기가 일본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자리에 앉아 설명을 듣는 동독우 부원들의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정다원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은 4명씩 짝을 이뤄 발표내용을 토대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홍보를 이어간다. 올해는 12명의 부원이 3개의 모둠으로 나눠 때로는 전체가, 때로는 모둠별로 활동해 오고 있다.

김예준(1학년) 학생은 “원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독도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이주하(1학년) 학생은 “독도 관련 지식뿐 아니라 독도를 알리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활용법과 카드뉴스 제작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동독우 학생들은 동아리 부원 선발 전 과정을 직접 한다. 동아리 활동을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유일한 선발 기준이다. 선발 기준은 단순하지만, 전교생의 관심이 높아 경쟁률은 치열하다. 박준형(1학년) 학생은 “독도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혼자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서 좋다.”라며 “앞으로 독도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지훈(1학년) 학생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면접을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일본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재환 교사는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에서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②

Mini Talk

박혜원(3학년)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왜 우리의 영토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가장 먼저 독도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독도에 가려고 했는데, 무산됐다. 올해에는 꼭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다.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독도알리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

최정우(3학년)

독도에 관한 이슈들은 많은데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1학년 때부터 활동하고 싶었지만 동독우는 우리 학교에서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 1순위라서 어려웠다. 지금이라도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봐왔기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재환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더욱 만족스럽다.

정다원(3학년)

선배가 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한 뒤에 오는 뿌듯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신입 부원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는 동안 프로그램 능력이나 발표실력이 좋아져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늘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고 싶다.

김시우(2학년)

올해 동독우 활동을 하게 되어서 몹시 기대된다. 특히 독도탐방과 독도체험관 견학이 기다려진다. 체험관을 견학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활동과 함께 독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 독도에 대해 많이 배우고 동독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고 싶다. 더불어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부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양현재(2학년)

독도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PPT를 만들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 선생님께 배우는 기존의 학습과 달라 기억에 많이 남았다. 사진으로 보던 독도를 직접 봤을 때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했다. 또 교내에 화단을 만들어 독도 자생식물인 섬기린초를 심었는데,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기뻐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다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대 원장으로 이규민 원장이 지난 3월 2일 취임한 가운데, 첫 행보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스템과 이의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다. 이 원장은 수능 출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문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이의심사도 투명하게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월 6일 집무실에서 만난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이규민 원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_ 이순이 편집장

Q 엄중한 시기에 평가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평가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해 전임 평가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신 후 그 후임으로 오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능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대사로 작년의 출제오류가 야기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수능이 1993년부터 도입되어 입시제도로 정착된 지 어느덧 약 30년이 됐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학입시에서 활용되는 전형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생성되는 학교 성적과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이고,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전형 요소입니다. 마지막 전형 요소는 국가에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하는 수능입니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고등학교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사용되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활동, 면접이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정시 전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수능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해 수험생들의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

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수능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부분과 이의심사과정에서 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평가 전공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가 전문 연구기관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능의 출제 시스템과 문항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 중요도를 고려할 때 단 한 문항의 출제오류도 허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9차례의 수능 출제오류가 있었고,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개선 노력이 수능의 문항 출제오류 가능성을 줄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전 영역에서 고난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전제들이 부여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출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문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 중에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항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집중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의심사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견이나 소수의견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이의심사실무

위원회를 영역별로 하던 것을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문 요청 학회 선정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의심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며, 이의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Q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육평가 부문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연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먼저,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차세대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학교교육 지원에 경주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공교육이 실효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넘어 소위 컴퓨터 적응 검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컴퓨터 적응 검사는 학생의 반응에 따라 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즉, 학생이 정답으로 응답하면 더 어려운 문항들이 제시되고, 학생들이 오답으로 응답하면 좀 더 쉬운 문항들이 제시되어, 모든 문항이 학생의 능력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되는 맞춤형 검사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 학습을 촉진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여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Q 2028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만들 때 교육과정 개정 취지나 고교학점제 운영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8학년도 입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기에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입시 4년 예고제에 따라 2023년에는 새로운 입시와 수능에 대한 확정 고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나 내년에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개선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합니다. 간혹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유리되어 불일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로 특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수능과 입시제도의 마련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수능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듣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여 수능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제가 평가원장이 되기 전 교수로 재직할 때, 2028학년도 수능을 수능 I 과 수능 II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기자분들에게 아직도 수능 I 과 수능 II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는데, 평가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이 안은 유일한 대안이거나 반드시 이 안으로 수능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개선위원회 논의와 개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서 임기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평가원 하면 대부분 수능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세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중한 수탁과제와 각종 사업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구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연구원들이 가진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②

SPECIAL

vol.478 MAY

학생이 떠난 학교,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는 3,855교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떠난 공간을 방치하기보다는 리모델링하여 학생들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자연 체험과 힐링을 위한 캠프장으로,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청년을 위한 플랫폼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각종 체험학습장과 박물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학생과 지역민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 16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찾아왔다
- 21 폐교에 둥지를 튼 청년들, 농촌에서 미래를 그리다
- 24 생태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발견
- 28 폐교의 무한변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탄생



1 부산학생안전체험관 풍수안전체험존 2 회동마루 전경
3 부산영양교육체험관 맛나놀이터 4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상안전체험실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찾아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학생들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산시교육청으로, 부산은 폐교를 활용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놀이마루), 부산과학체험관,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영양교육체험관&창의공작소(회동마루), 인성교육체험관(울림마루), 부산학생안전체험관 등 학생들을 위한 체험 공간,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 학습장으로 활용 중이다.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교육 현장을 찾았다.

옛 회동초, '회동마루'로 거듭나다

'회동마루'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모교로 알려진 옛 회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공간으로 1~2층에는 영양교육체험관이 들어서 있다. 부산영양교육체험관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영양교육을 위한 체험관으로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영양체험을 하면서 편식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1층 영양체험실에는 각종 과일 모형으로 꾸며진 '맛나놀이터', 건강밥상을 차려볼 수 있는 '영양밥상', 영양골든벨을 진행하는 '맛나버스',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찾아보는 '식품안전 119', 재미있는 오감 체험이 가능한 '미각교실', 음식 속에 숨어있는 당과 나트륨을 찾아보는 '나당



부산영양교육체험관, 창의공작소, 울림마루,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체험은 부산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home.pen.go.kr/yeyak)에서 학교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1 부산 사하초 6학년 학생들이 창의공작소 디지털교실실에서 완성한 목공예 작품을 뽐내고 있다.
- 2 영양교육체험관에서 영양밥상을 차려보는 동평초 2학년 아이들
- 3 각종 식재료 모양을 응용해 만든 '맛나놀이터'
- 4 고사리손으로 쿠키를 만들고 있는 동평초 아이들

실험실', 슬기로운 간식을 골라보는 'NU편의점' 등으로 구성된 공간이 있어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영양교육이 이뤄진다. 1층 영양뮤지엄에서는 학교급식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식관에서 우리나라 밥상을 대표하는 쌀과 김장문화를 알아볼 수 있다.

2층에는 '키친스튜디오'와 '키즈쿠킹클래스'가 있어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음식과 건강식 요리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영양교육체험관을 방문한 지난 4월 15일, 동평초 2학년생 6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한창이었다. 이날 요리 프로그램은 '쿠키 만들기'로 동평초 학생들은 천연색소를 이용하여 고사리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쿠키를 만들었다.

같은 건물 3~4층에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공작소가 운영되고 있다. 창의공작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처음부터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을 신장하는 창의공작 프로젝트 활동 △실습·노작 활동을 통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 △부산형 메이커 문화 확산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과 공간을 구성했다.

현재 목공과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창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교 과정과 3D프린팅, 메타버스 체험이 가능한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교실

특별기획 1 _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찾아왔다

3칸, 하이테크교실 3칸을 갖추고 있다. 2019년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3만 5천 명의 초등학생이 이곳을 다녀갔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원 400명도 이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4월 15일, 창의공작소에 사하초 6학년 48명과 연산초 6학년 72명이 방문했다. 창의공작소는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인솔 교사와 2주 전부터 온라인 연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학생들은 미술, 실과시간에 미리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스케치를 완성하였으며, 창의공작소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수업재료 등을 미리 준비했다. ‘시계’ 제작에 나선 연산초 한 모듬은 원형 나무판에 시계 모형을 꾸미고 LED줄로 시계 테두리를 감쌌다. 시계에 붙일 1~12 숫자는 3D프린터로 출력했다. 창의공작소 엄진환 교육연구사는 “3D프린팅을 하려면 설계도면을 입체설계도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핑거카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처음 접하는 건데도 쉽게 따라 한다.”라며 “학생들이 창의공작소에서 하루 6차시에 걸쳐 다양한 메이커 체험하며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 인성교육의 허브 ‘울림마루’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명지초등학교가 2016년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수년째 방치됐던 옛 명지초(부산 강서구 영강길81번길 24)를 활용해 지난해 9월 경 인성교육체험관(울림마루)을 개관했다. 울림마루는 지상 2층, 연면적 5,092m² 규모로 옛 명지초의 예쁜 정원은 그대로 살리고 내부부를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실내에 학생체험실, 쉼터, 다목적실, 방송실, 보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별관에



5 창의공작소에서 부산 연산초 6학년 학생들이 완성한 시계

6 디지털교과실에서 사하초 6학년 학생들이 목공예를 하고 있다.



는 학생과 교사의 숙소와 사위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원활하게 ‘존중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체험실을 나부터(자기 존중감), 작은 것도(생명 존중), 귀 기울여(공감·소통), 편견 빼고(다양성), 다 같이(협력) 등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도 특색있다.

울림마루 김연주 교육연구사는 “폐교 이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3~4년 이상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인성교육체험관으로 개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림마루 이용 대상은 초등 4학년으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2일간 머무르며 ‘존중탐험대’의 주인공이 되어 ‘나부터’, ‘작은 것도’, ‘귀 기울여’, ‘편견 빼고’, ‘다 같이’ 등 5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존중과 배려,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김연주 교육연구사는 “초등 4학년을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이면서 사춘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7 존중탐험대원들(부산 남산초 4학년생)이 울림마루 곳곳을 누비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

8 울림마루 전경

9 존중탐험대원들의 자작시 낭송 모습

시기로 놀이와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적기로 판단했다.”라며 “아이들은 울림마루를 놀이동산처럼 느끼고 있으며, 또래와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운다.”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산초 한 학생은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꼭 노력해서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다. 존중탐험대 체험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부산 초등학생 인성교육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는 울림마루. 개관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옛 명지초 운동장 부지에 3층 짜리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연면적 6,337m²)을 신축하여 학생들과 지역민의 안전교육 체험장으로 활용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7년 안전체험관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 교육청 자체 예산 217억 원을 들여



특별기획 1 _ 학생이 떠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찾아왔다



10 11 부산 명진초 2학년생의 심폐소생술교육(위)과 음주고글체험(아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4일 개관했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1층에는 어린이안전체험실·수상안전체험실을, 2층에는 교통안전체험실·대형교통안전체험실·(야외)생활안전체험실을, 3층에는 재난안전체험실·신변안전&응급처치체험실·(주거안전)생활안전체험실 등을 갖췄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험관 내에 수상안전체험실을 갖춰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교육과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풍수안전체험존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감나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체험관은 4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5월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학기 중에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초등

3~5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방학 중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가족·일반인 대상의 안전체험교육과 교직원 대상의 안전체험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 운영 기간에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찾은 명진초 2학년 학생들과 오히정 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오히정 교사는 “학교로 온 공문을 보자마자 체험신청을 했다.”라며 “시범 운영 기간이라 아직 모든 체험관을 둘러보지 못했지만, 부산에 매년 대형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런 체험이 잘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명진초 학생들은 3층 신변안전&응급처치체험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생활 속 응급처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생명존중교육 등을 통해 하나뿐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이날 음주고글을 쓰고 걸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됐으며,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혹은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슴압박을 하면 생존율을 3배 가량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전지영 장학사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단위로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담고 있다. 7대 표준안이 전부 다 반영된 체험관은 전국에서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모델은 폐교를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 주도로 안전, 인성, 영양 등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⑦

특별기획 2 _ 폐교에 등지를 튼 청년들, 농촌에서 미래를 그리다

글 _ 편집실 사진제공 _ 청년이그린협동조합

폐교에 등지를 튼 청년들, 농촌에서 미래를 그리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아천1리 마을 중심에는 한 폐교가 있었다. 2011년 3월에 문을 닫은 은척중학교 아산분교다. 2층짜리 빈 학교는 농촌살이 청년들의 베이스캠프이자, 마을 주민이 모이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쓰임새를 잃어 과거에 멈춰진 공간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학교로 재탄생했다.



2017년 9월 결성된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하, 청그협)’은 폐교를 중심으로 마을 이장 등 주민과 귀농한 청년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이다. 백아름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대표는 귀농 5년 차다.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아천1리 장동범 이장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2017년 7월 부산에서 상주로 귀농했다. 청그협 조합원은 총 11명, 그중에서 청년이 10명이다. 2017~2022년까지 청년 30명 이상이 청그협 활동에 참여했다. 청그협이 추구하는 가치는 ‘농락청’, 지속 가능한 농촌, 즐겁고 행복한 농촌, 청년이 있는 농촌이다.

농촌 학교에 청년들이 산다

현재 청년 4명이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는 농촌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귀농·귀촌 청년들의

보금자리다. 청년들은 학교의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마을 주민 모두가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내려앉은 학교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부서진 벽을 세웠다. 마을과 거리감이 있어 보이던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운동장에 버려진 물건을 치웠다. 백아름 대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학교를 도색했다. 그 외에 학교를 꾸미거나 정비하는 것은 청그협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운동장 한편은 어린이 놀이터, 컴퓨터 등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살기란 녹록지 않았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선풍기로, 한겨울의 추위를 온열기, 화목 난로로

- 1 2층짜리 빈 학교는 청년들의 베이스캠프이자 마을 주민이 모이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2 폐교 내에 마련된 작은도서관

특별기획 2 _ 폐교에 등지를 뜬 청년들, 농촌에서 미래를 그리다

해결해왔다. 백 대표는 “최근 학교 건물 내 교실 3곳에 냉난방 에어컨을 설치했다.”라면서도, “그 계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화공간 달 두 개 학교

이름이 사라진 폐교에는 ‘문화공간 달 두 개 학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백 대표는 “저희 마을은 아름다운 지평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이며 “밤하늘에 뜨는 달과 저수지에 비치는 달, 이렇게 달이 두 개가 뜬다고 해서 달 두 개 마을”이라고 설명했다.

2층짜리 학교에는 10칸의 교실이 있다. 각각의 교실은 카페, 사무실, 도서관, 공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붙인 ‘아나스타 마을 카페’는 학교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백 대표는 “이곳은 아나스타시아의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소통, 교류,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닮기 위해 만든 곳으로 청그협과 이러한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달 두 개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곤충학교 벅스라이프’ 공간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를 위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협업을 맺고 있는 마을의 자원을 토대로 곤충 체험, 식용곤충사업 등을 하는 공간이다. ‘목공방 제페토’는 가구 만들기, 재활용(리사이클링) 가구 만들기 등 목재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는 공간이다. ‘자연밥상 연구소’는 제철 농산물,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초 등을 이용해 건강한 밥상을 차려서 먹는 원데이 클래스를 연구하는 곳이다. 도예 작가의 공방으로 도예 체험, 수업, 전시, 판매까지 하는 ‘도예 공방 화’도 마련돼 있다. 학교에서는 자연농법, 우리의학, 관절염 태극권 등의 마을 교육이 이뤄진다. 문화공간 달 두 개 학교는 마을 주민에게 교류의 장이자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학교에서 동거동락

학교는 청년들에게 농촌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청그협 청년들은 토지를 장기 임대해 2020년부터 농장을 조성하고, 주로 협업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백 대표는 “4~5월에는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고, 땅도 만들고, 퇴비도 뿌리며,



3

심어 놓은 모종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다. 고추 작물은 시설 하우스에서 400평, 참깨 들깨 작물은 1,200평, 쌀은 1,400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 청그협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기계로 논과 밭을 갈아엎는 농사가 아닌 무경운농법을 이용해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밭에는 비닐 대신 쌀농사를 짓고 남은 벼짚을 깔았다.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미생물과 유기농 퇴비를 주는 유기농 농사를 짓고 매년 토종 씨앗을 받아 텃밭 농사도 짓고 있다. 또한, 제주도 이엠(EM) 환경센터, 자닮 등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유기농 농사를 배우고 있다.

학교는 초보 농부의 학교가 되기도 한다. 청그협은 그 가운데서 초보 농부의 멘토가 되어줄 고수 농부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백 대표는 “협동조합은 폐교의 공간을 이용한 체험, 관광의 일과 청년들의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영농조합은 유기농 농사와 농산물 판매의 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그협은 영농조합을 통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 고령농, 소농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청그협이 직접 수확한 작물은 가공해서 온라인에서 팔거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 수익은 운영비,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농사와 판매에 함께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

마을청년으로 살아가는 법

학교에 등지를 뜬 청그협 청년들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백 대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힘들거나 일손이 필요한 일에 도움을 요청하고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도 한다.”라며 “스마트폰 사용법, 가전제품 사용법 등을 어르신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소소하게 알려 드리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그협 또는 마을, 지역에 오고자 하는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방문하고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역과 생태 환경에 조금이나마 이롭도록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②

- 3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
- 4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목공소
- 5 귀농한 청년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4



5

생태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발견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학생들이 떠난 농촌의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모순되게도 농촌의 폐교는 넓은 운동장과 공터, 텃밭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최근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농촌 폐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민을 위한 캠핑장 등 생태체험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 중이다. 학생들이 떠난 폐교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년째 전국 8곳에 서울캠핑장 조성한 서울시

서울시는 농촌의 폐교를 활용해 도시아이들에게 자연 체험과 야영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조성한 대표적인 곳이다. 서울시는 2013년 강원 횡성지역에 1호로 별빛마을 캠핑장을 개장한 데 이어 현재 경기 포천(자연마을 캠핑장), 충북 제천(하늘뜨레 캠핑장), 강원 철원(평화마을 캠핑장), 충남 서천(금빛노을 캠핑장), 전남 함평(나비마을 캠핑장), 경북 봉화(솔향가득 캠핑장), 경북 상주(감꽃마을 캠핑장) 등 8곳에 서울캠핑장을 운영 중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의 폐교 활용 서울캠핑장 조성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난 폐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한 도농상생사업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폐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사업비를 들여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캠핑장의 최대 장점은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에 위치한 4호 ‘평화마을

최근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농촌 폐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민을 위한 캠핑장 등 생태체험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 중이다.

캠핑장’은 20년 넘게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방치됐던 옛 유곡분교를 리모델링해 2016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철원지역은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된 곳으로, 운이 좋다면 독수리(멸종위기 II급), 두루미(멸종위기 I급), 재두루미(멸종위기 II급) 등 천연기념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철원은 철새도래지로 유명하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추새, 검은머리추새, 흰배멧새, 꼬까잡새 등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체험과 캠핑의 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정책과 장운모 교육시설지원팀장은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되던 평화마을 캠핑장이 코로나19로 인해 보안·안전상 2년 6개월간 잠정 폐쇄됐었다. 그동안 재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관할 군부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왔으며, 성과를 이뤄 지난 4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횡성 ‘별빛마을 캠핑장’은 1995년 폐교된 옛 월현분교를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텐트장 20동이 마련되어 있다. 별빛마을 캠핑장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이용이 잦은 곳 중 하나다. 캠핑장 인근에 치악산에서 이어지는 주천강이 흐르고 있어 등산은 물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월현지역은 어디서나 별을 볼 수 있고 주변에 천문대가 있어 별자리 관측도 가능하다.

별빛마을 캠핑장을 다녀온 이선용(서울 동대문구 거주) 씨는 “하늘을 총총히 수놓은 별들, 강물이 흐

르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나무 흔들리는 소리 등이 너무 좋았다.”라며 “캠핑장에서 닭을 기르고 있어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아침에는 표고버섯 종균 체험이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아이들이 참나무에 표고버섯 종균을 심고 왔는데 무척 신기해했다.”라고 횡성에서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서울캠핑장은 데크, 텐트, 테이블, 화덕 등 야영 필수품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물 안과 밖에 당구장, 탁구장, 북카페, 바둑교실, 긴급대피소, 화장실, 샤워장, 배드민턴장,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교육정책과 이성민 주무관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3만 5천 명의 캠핑족이 찾는 명소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연간 2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라며 “여름방학과 주말에는 예약이 금방 마감될 정도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남, 폐교를 차박캠핑장, 생태체험장 등 주민 쉼터로

한편, 전국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전남(833교)에서는 지난해부터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박캠핑장’과 ‘생태체험장’ 등 다양한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매각 또는 대부예 의존하던 기존 폐교 정책을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별기획 3 _ 생태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발견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여수 돌산중앙초, 순천 승남중 외서분교, 곡성 도상초, 영광 홍농남초 계마분교 등 4곳의 폐교를 ‘공감 쉼터 시범운영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조경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폐교 뒤 14년 동안 방치됐던 옛 돌산중앙초는 지난해 10월경 ‘돌산365 가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폐교 부지 인근 숲과 넓은 해안가 등 빼어난 경관을 활용해 계절별 꽃 단지와 산책로 등을 만들어 지역민을 위한 쉼터로 개방한 것이다. ‘돌산365 가든’ 조성에 교육청 예산 2억 6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여수시에서도 정원 조성에 필요한 수목기부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박이현 주무관은 “방치되었던 폐교를 활용하여 테마정원과 체험학습 공간 등 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라며 “홍물로 취급되던 시설을 지역사회 명소이자 관광자원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에서는 옛 승남중 외서분교 부지를 생태

체험 학습장 및 로컬푸드점, 차박캠핑장 등의 시설로 운영한다. 곡성에서는 옛 도상초를 이용해 쉼터뿐만 아니라 가족학교로 운영한다. 인근에 곡성 기차마을 등 관광지도 있어 외부인이 찾기 쉬운 관광지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 밖에도 1999년 9월 학교 문을 닫은 영광 홍농남초 계마분교는 폐교된 지 오래되어 건물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지역 명물인 가마미해수욕장과 도보로 1분 거리라는 점을 고려해 공원, 산책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전남교육청 재산관리팀 임훈규 주무관은 “폐교를 지역민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 연말까지 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광양·여수·영광·해남·진도 등 폐교 8곳을 개·보수해 지역민을 위한 공감 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자연과 힐링을 위한 공간 오토캠핑장 조성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외 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옛 상옥초



4



5

- 4 옛 돌산중앙초 부지에 조성된 '돌산365 가든' (사진제공=전남 여수교육지원청)
- 5 푸른 영덕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영덕오토캠핑장
- 6 포항산누리캠핑장 (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6

하옥분교, 대덕중 증산분교, 영덕야성초 창포분교를 학생과 교육 가족을 위한 수련시설인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으로 재활용 중이다. 포항산누리·김천·영덕오토캠핑장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끝내고 올 1월 예비 운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에 들어갔다. 먼저,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이 들어선 자리는 옛 상옥초 하옥분교 부지로 이곳은 1993년 폐교된 이래 학생수련원으로 활용되다 2017년 다시 문을 닫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캠핑장 주변으로 하옥계곡이 흐르고 있어 오롯이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김천오토캠핑장’은 옛 대덕중 증산분교에 동지를 틀었다. 2016년까지 학생들을 품었던 학교는 2017년 지품천중학교로 통합되면서 그해 폐교의 길을 걷게 됐다. 옛 영덕야성초 창포분교 부지에 들어선 ‘영덕오토캠핑장’은 푸른 영덕 바다를 내려다보며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빼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2015년 폐교되어 학생들은 떠났지만,

지난 1월부터 오토캠핑장으로 새 단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지역민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 오토캠핑장 규모는 1곳당 15동에 일일 최대 수용인원은 60명(1면당 최대 4명) 규모다. 캠핑장 내에는 대피소를 비롯해 샤워장과 화장실, 포토존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빈 교실을 이용한 실내 공간은 현재 조성 중에 있다.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권진영 주무관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교육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워 연일 주말 예약이 매진 상태”라며 “교육 가족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여름방학에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가 포함된 가족캠프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경북교육청의 보유 폐교 수는 242교로, 그중 자체 활용 중인 폐교는 64교이다.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56교에 대해서도 교육적 가치를 살려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폐교의 무한변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탄생



1

지난해 개관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폐교를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범사례 중 하나다. 개관 첫해, 울산 지역의 초·중·고 학생과 마을주민 등 2만 5천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땡땡마물로도 불리는, 울산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땡땡(ㅇㅇ)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자리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는 마을주민들의 ‘놀이터’다. 가까이에는 상북면과 언양읍, 주말에는 멀리 울산 시내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몸놀이터(요가), 흙놀이터(도예), 나무놀이터(목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실마다 ‘놀이터’라는 문패가 달린 이곳에 지난해 약 2만 5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약 3만여 명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거점센터는 ‘땡땡(ㅇㅇ)마을’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린다. 땡땡마을이라는 이름에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나의 특정성에 가두기보다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66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마을주민들의 ‘놀이터’다.

99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랫말도 떠오르게 한다. 또 개관준비위원단이었던 학생들의 “학교 ‘땡땡이치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던 강력한 요청도 반영된 이름이다.

폐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모범사례로!

“땡땡마을이 지향하는 슬로건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스스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 자치 배움터’입니다. 울산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이곳에 거점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이 꾸려졌어요. 지난해 봄 개관하면서 울산 시교육청과 학교,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 거점 및 마을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계되어 운영 중입니다.”

3년 전 TF팀 활동부터 참여해 온 거점센터 김미진 운영실장의 설명이다. 땡땡마을은 2016년 궁근정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울산시교육청에서 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 곳. 땡땡마을 개관 이전에는 미술 영역 중심의 체험센터 갤러리로 활용되었다. 3년간 운영 결과,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섬’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인 양 비추어진 것이다.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의 교육 활동 확대가 필요했어요.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을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센터의 활동내용을 정하게 되었죠.”

땡땡마을의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마을시민배움터 프로그램, 학교연계 체험프로그램, 청소년자치 배움터 등이다. 이 중에서 거점센터의 특색을 잘 살린 프로그램 중 하나는 ‘누구나 땡땡교실’이다. 마을 사람들의 재능 나눔으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이 교실의 선생님과 학생이 배우는 음악줄넘기 교실의 강사는 두 명의 5학년 학생”이라면서 “알찬 수업 준비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소개했다.

12 폐교된 궁근정초 부지에 만들어진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마을주민들의 ‘놀이터’다.



2



거점센터의 자랑, ‘누구나 땡땡교실’

“‘누구나 땡땡교실’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뜨개질 교실의 강사님도 그런 분이셨고요. 하지만 강의 참여를 결심하시자마자 도안과 깨알 같은 손글씨로 뜨개질 순서를 직접 써서 지도안을 제게 SNS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마을의 젊은이들과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10명이 모여 앉아 뜨개질 수업이 이뤄져요.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재능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그 누구보다 솔선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땡땡교실’에서는 먼저 배운 사람이 다시 마을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배움과 가르침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며 김미진 실장은 자랑했다. 올해 봄학기도 ‘배움의 숲’ 프로그램 중 제과, 목공, 요가교실 등이 특히 인기가 높다. 인원을 무한정 수용할 수 없다 보니 추첨이 이뤄지기도 한다. 제과, 목공 교실 등 모두 재료비만 본인 부담. 강사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마을 교사’로 참여한다. 낮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나무놀이터에 온다는 한 참가자는 “이곳의 장비들이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저렴하게 재료비만 내고도 고가의 장비를 맘껏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라고 했다.

“이곳 상북면과 언양은 농촌지역이라 요가를 배울만한 곳이 딱히 없어요. 어르신들께 요가교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죠. 요가교실은 저녁 7시에 열리지만, 6시 30분쯤이면 어르신들이 커뮤니티 공간에 일찌감치 나오셔서 담소를 나누며 대기하시곤 해요.”

거점센터를 개관하면서 시설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곳이 센터 중앙에 카페처럼 들여놓은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곳에서 마을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일상적인 만남은 물론 영화, 공연, 소규모의 행사까지 진행된다. 공유카페가 무인으로 운영

34 거점센터에는 학생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과, 도예, 목공, 농사교실, 음악, 합창 등을 운영하는데, 매우 인기 있다.

되며, 공유오피스도 개방돼 있다. 상북면 주민들의 마을자치실 역시 누구나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른들은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 청소년들의 사적 공간인 ‘청소년 전용구역’도 열려 있다.

“학교 너머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어요!”

마을시민배움터 프로그램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강좌가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연계 체험 프로그램이다. 제과, 도예, 목공, 농사교실, 음악, 합창 등의 영역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과, 목공 등이 역시 어른들 강좌만큼 인기가 많다. 반딧불이 애벌레를 키워보는 ‘반디교실’에서는 지역에 사는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이다. ‘옛날옛적愛 교실’은 지역의 할아버지 선생님이 마을교사로 나서 땡땡마을 인근 가지를 배경으로 전해져 오는 다양한 전설, 어르신들이 체득해온 삶의 지혜와 기술을 미래 세대에게 들려준다.

땡땡마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사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1 생활SOC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인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례로는 첫 번째 수상이다. 폐교 활용을 위해 지역민과 전문가,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미진 거점센터 운영실장은 “학교 너머의 교육 활동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땡땡마을의 활동들이 공교육의 지원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진 실장은 덧붙여 “기존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학부모가 아니면 관계 맺기가 수월하지 않았다.”라면서 “지역의 폐교뿐만 아니라,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

TIP BOX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땡땡마을은요?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연다. 센터 내 일꾼 7명과 21명의 마을교사, 그리고 마을의 시니어 자원봉사자 등 민·관·학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 땡땡마을의 주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은요? 누구나 땡땡교실·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마을시민배움터’, 초등학생 창의체험과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상북면과 언양권 등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자치배움터’ 등 3개의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상생모형 구축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글_ 이상우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

2022년 고등직업거점지구 사업 추진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분야를 살려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0개 연합체(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총 국비 405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의 추진 방향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며 해당 분야에 따른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토대로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특화 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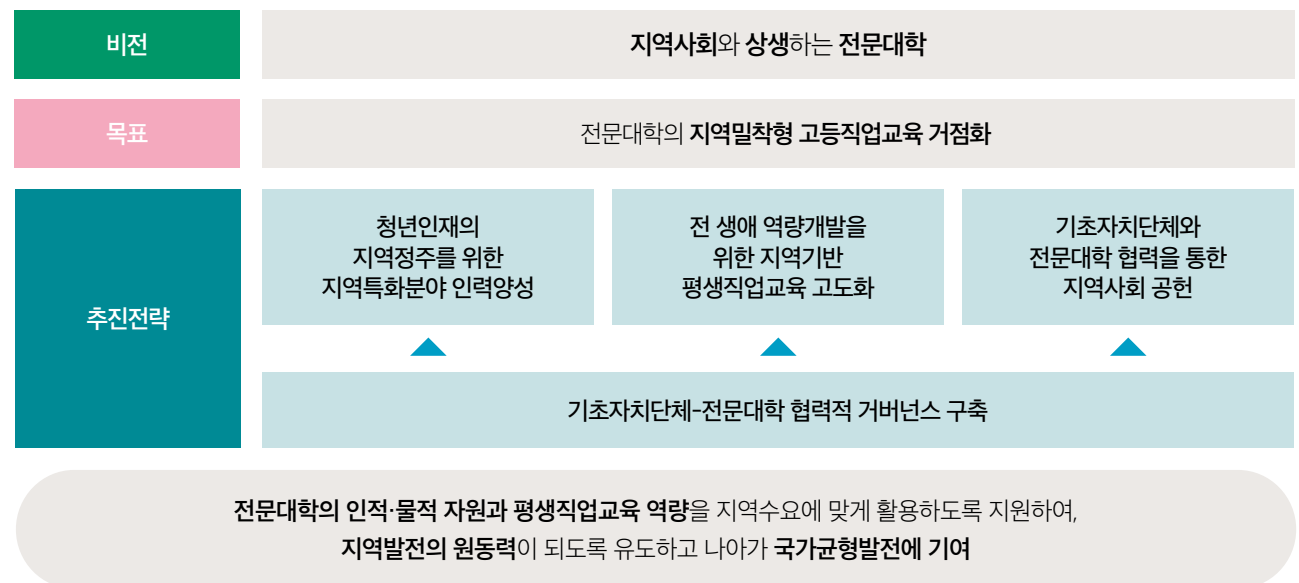


아울러 거버넌스 간 연계방안도 제시하였다.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RIS를 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RIS사업의 핵심 분야와 연계한 하위 단위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 RIS 사업은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본 사업은 생상공정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경우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산업체 취업 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화 또는 후학습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면 된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대학’에 무게를 두고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전 생애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기반 평생직업교육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 전직교육,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등 단기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전문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속적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입학에서 정주까지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이 되도록 질 높은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추진 방향



전문대학의 기초자치단체 발전 핵심 주체 역할 요구

전문대학의 최대 강점은 광역 중심에 위치한 일반대학보다 기초자치단체 구석 구석에 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대학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전문대학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責務)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효과로는 전문대학 측면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취업 활성화는 물론, 교수들은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이 △4차 산업혁명 및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고용구조 개선에 따른 중간기술자 양성 △능력과 실용 중심의 직업사회화에 따른 직업인력 양성 △실질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 강화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지자체-전문대학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중심이 돼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는 전문대학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지역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은 지역에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수익재원을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고등직업거점지구사업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모습을 기대한다. ②



전문대학 -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상생모형 구축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 내 특화분야 선정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역할 수행을 지원합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대상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권소사업)
지원규모	연합체 당 총 사업비 15억 원 내외 (총 국비 405억 원, 지방비 45억 원 이상)
지원기간	선정 시부터 3년간 지원 ※ 2022년 사업기간: 2022. 선정 시 ~ 2023.2.28.
사업권역 및 선정규모	총 30개 연합체 이내 (권역별 6개 내외)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6개 이내	6개 내외			

지역 내 산업체 지원방안 모색

지역발전의 원동력 유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비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대학
목표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추진전략	기초자치단체 - 전문대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청년 청년인재 지역정주를 위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성인 학습자 전 생애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기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사회 공헌
--	---	--



연합체별 주요사항 심의·의결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운영합니다



지역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사항]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요양 복지시설위탁 운영, 대학 내 시설 주민 개방 등)	 지역공헌 등 역할 강화
 그 외 타사업 연계	타 사업 종목·사각지대 해소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해 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체계구축 ※ 타 재정지원사업과는 중복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연계·협력을 중점으로 추진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더 안전하게~

글_ 편집실 그림_ 이정화





강원도교육청

행복한 삶과 진로설계를 위한 ‘청소년인생학교’

지난해 300명 이상의 강원도 학생과 교직원이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에 있는 ‘청소년인생학교’에 다녀갔다. 청소년인생학교는 타인과 연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지적, 정서적 자양분을 얻기 위해 마련된 진로설계 전문 프로그램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청소년인생학교를 소개한다.

글_ 편집실 사진제공_ 청소년인생학교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표도 정확히 없었는데 삶에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인생학교 감사합니다.” (청소년인생학교 1기 입소생)

-청소년인생학교 홈페이지 ‘기억의 티’에 남긴 발자국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청소년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인생학교에서는 교육과 놀이를 융합한 강연과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미래 진로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원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 이지연 장학사는 “초·중학교 진로탐색 과정 이후 바로 고등학교 입시와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행복한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를 잃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진로설계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비교과 수업 통해 ‘인생’ 탐색 기회 제공

인생학교에서는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수업을 자유롭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의 ‘리버럴 아트(Liberal Arts: 기초교양)’, 토의·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책 도서관’, 음악, 그림, 놀이, 운동 등의 예체능 융합과정, 상담 프로그램인 ‘뜻밖의 상담소’, ‘진로 & 삶(인생) 컨설팅’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강의와 놀이, 수행, 액션리서치 등 융합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강원도 출신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한다.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생 선배의 삶이 현실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기에 강원도 출신 강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행복의 조건, 그리고 우리의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호연 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융합학부 교수는 “진로 선택은 삶의 문제다. 따라서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할 때 단순히 직업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진로탐색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당일형, 합숙형(금·토 1박 2일), 방학집중형(2박 3일, 3박 4일)으로 운영된다. 최대 입소 인원은 32명인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합숙형, 방학집중형 프로그램에 각각 200명, 6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인생학교의 모든 프로그램과 숙식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춘천역-인생학교 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청소년인생학교장 이수증’을 수여하며 인생학교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도교육청·마을공동체가 함께 청소년 인생설계 지원

인생학교는 폐교인 옛 천전초 부귀분교(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433-1) 부지에 세워졌다. 이지연 장학사는 “설계 당시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기획 의도대로 자연 속에 학교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교실은 대형 강의동(기억의 티)과 소형 강의동(같이, 좋은, 우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서리가



교실은 대형 강의동(기억의 터)과 소형 강의동(같이, 좋은, 우리)으로 구성돼 있다.

없는 둥근 형태가 특징이다.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나다운 삶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다. 숙소동인 사색의 터는 야영장을 연상시키듯, 글램핑 텐트 8동이 있다. 이외에도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둥근터)과 식사공간(봉스테이 키친), 보건실, 샤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인생학교 앞에 있는 계곡, 산, 밭, 오솔길, 부귀리 마을도 학생들의 배움터다. 특히 부귀리 마을은

인생학교의 든든한 동반자다. 부귀리 마을 부녀회장과 주민은 인생학교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여름방학 집중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마을 어른들은 아침 산책길에 학생들의 동무가 되고 이들과 어울려 물놀이, 사물놀이도 함께 한다. 학생들이 퇴소하면 인생학교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새로 입소할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부귀리 마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청과 마을공동체가 협력하며 청소년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인생학교’ 운영 등 학생 참여폭 확대

인생학교를 다녀간 학생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1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인생학교 만족도 조사’¹ 결과, 교육과정과 강사 만족도는 91.8%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인생학교 재신청 의사는 88.5%로 높았다.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매달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매주 입소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023년까지 매년 운영비 7억 원을 투입해 인생학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인생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부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생학교 신청 대상자를 기존 고등학교 1~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다. 2022년도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이미 신청이 마감됐지만 도교육청은 인생학교에 입소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7월 말과 12월 말에 ‘찾아가는 인생학교’를 통해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여방법 • 고등학생: 인생학교 누리집(lifeschool.gwe.go.kr) 개별 신청 • 중학생: 학교에서 개별 신청

¹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지를 활용한 청소년인생학교 만족도 조사

EDUCATION NEWS

vol.478
MAY



NEWS 01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 인식도 수준을 조사했다.

초·중·고 학생의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에 대해 초등학생 중 27%는 우울감을 느꼈으며, 26.3%는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 중 12.2%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을 느꼈으며, 7%는 중등도 이상의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등도 이상’은 2주일간 7일 이상 느끼는 것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생 52.3%는 ‘변화 없음’을, 43.2%는 ‘증가’라고 답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64.4%는 교우관계에 ‘변화 없음’을, 31.5%는 ‘나빠졌다’라고 답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73.8%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우울·불안, 생명 존중 교육(6차시) 내실화 △학교·학급 단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40종 보급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심리상담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NEWS 02 세종공동캠퍼스에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교육부는 세종공동캠퍼스에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숙사 확충 사업의 하나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은 정부혁신을 구현할 미래형 신개념 캠퍼스로 다수의 대학이 학교 건물과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에게 우수한 기숙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여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으로 지난 3월 말 착공하여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는 세종공동캠퍼스 부지에 약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입주자 편의와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공용공간과 1·2인실 등의 사생실로 구성된다. 이번 행복기숙사는 기존의 행복기숙사와는 달리 공동캠퍼스 내에 건립되어 학생들의 편의 및 학생 간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글_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면,
수도권 대학 이상의
우수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베이비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인구절벽’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면서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전형,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1980년 대학 졸업정원제 등의 교육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구절벽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인구절벽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났다. 1차 인구절벽은 33~37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이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인구절벽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2차 인구절벽은 15~20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대학 입학 학령인구에 해당하며 현재의 지방대학 위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차 인구절벽은 0~5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인구절벽 학령인구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7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대학진학률을 70%로 계산할 경우 매년 입학정원이 3,000명인 대학을 15개씩 문 닫아야 하는 규모다.

고등교육 보편화와 직업 교육화

트로우(M.Trow)는 고등교육의 변화 단계를 취학률을 기준으로 엘리트교육, 대중교육, 보편교육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엘리트교육 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이성의 형성을 통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엘리트를 양성하였고, 대중교육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취학률이 50%를 넘어서는 보편교육 단계에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화되며, 이 과정에서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 교육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대입 정원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서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다. 1979년 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 중견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의 구분은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면서 모호해진다. 전문대학은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의 운영을 확대하면서 4년제 대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4년제 대학은 취업에 유리한 직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한다.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임상병리, 직업치료, 치위생, 치기공 등 보건관련 직업 학과를 설치한 전문대학이 74개인데 비해, 4년제 대학도 63개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는 ‘전문대학의 직업 학과’, ‘4년제 대학의 직업 학과’, ‘4년제 대학의 학문중심학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에 불리한 ‘학문중심학과’에서 취업에 유리한 ‘직업중심학과’로의 학과 구조 변화가 지속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의 개편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구분은 1980년의 대중교육 단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고등교육이 다양화하고 직업 교육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는 공장 및 사무자동화로 인한 단순 인력의 감소와 연구기술개발인력 수요의 증가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기능은 직업교육과 연구개발로 구분된다. 즉 ‘직업중심학과’와 ‘연구중심학과’의 구분이다. 직업중심대학은 기존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가운데 직업 중심의 학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이며, 연구중심대학은 학문 중심의 학과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직업중심대학은 연구개발 등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직업중심대학은 '준공영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구조개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직업중심대학은 지역 산업과 지역의 인력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학과 간의 통폐합과 대학 간의 학과 교환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준공립 형태로 운영한 것처럼 직업중심대학도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산업 중심의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연구중심대학은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학 및 학과 간 경쟁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중심의 지원은 연구비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에서 60~70%까지 확대하고, 연구 간접비를 대학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렇게 하면 연구중심대학의 수입 가운데 연구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된다. 아무리 우수한 대학이라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경쟁 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직업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구분은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직업중심대학은 정부의 직접적 구조개혁을 전제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준공영제를 표방한다. 준공영제 형태의 직업중심대학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대학은 경쟁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의 경쟁 구조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다.

지방대학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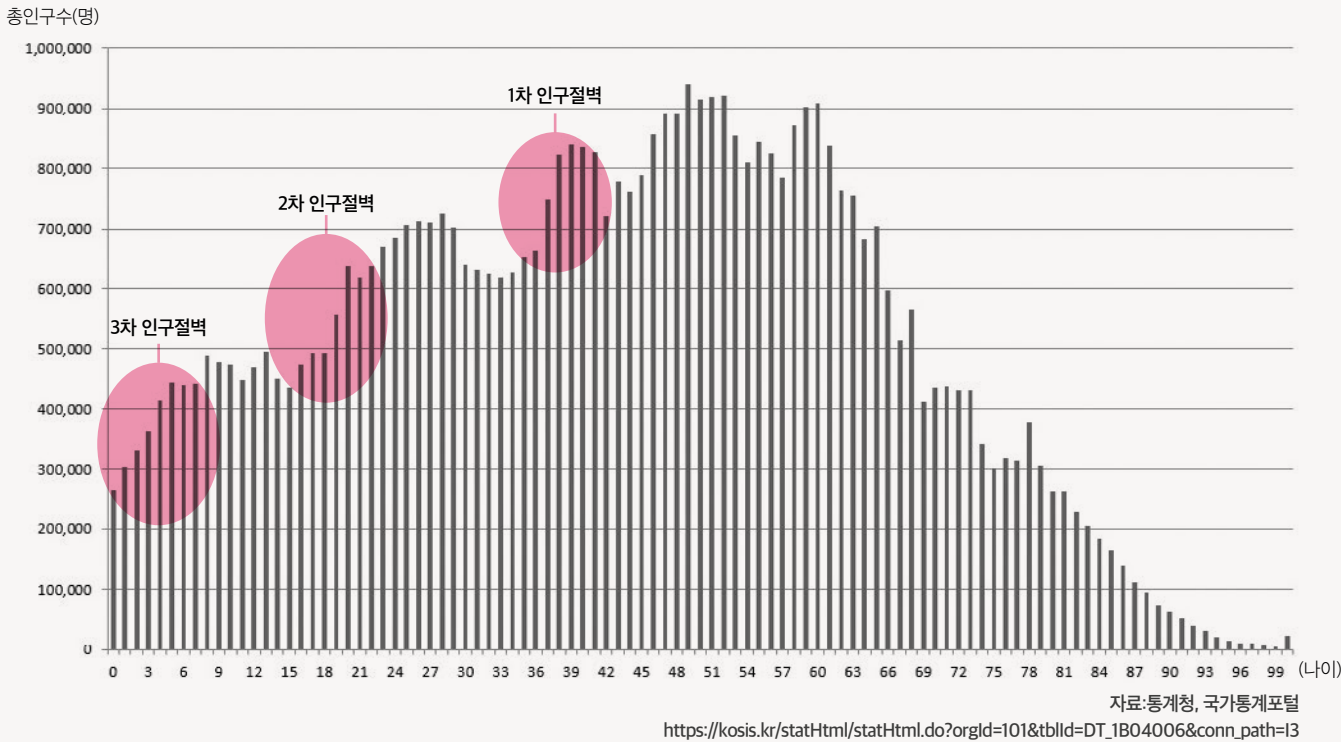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업중심대학은 수도권, 강원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등 초광역 단위의 산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즉 초광역 단위를 기초로 지역대학청이나 지역대학재단을 설립하여 직업중심대학에 대한 지원과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지역대학청 또는 재단은 지역의 산업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학과구조를 통폐합하여 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잉여 자원은 지역의 직업훈련 및 재교육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학교 간의 학과 통합이나 전문화는 향후 해외 유학생을 유치할 때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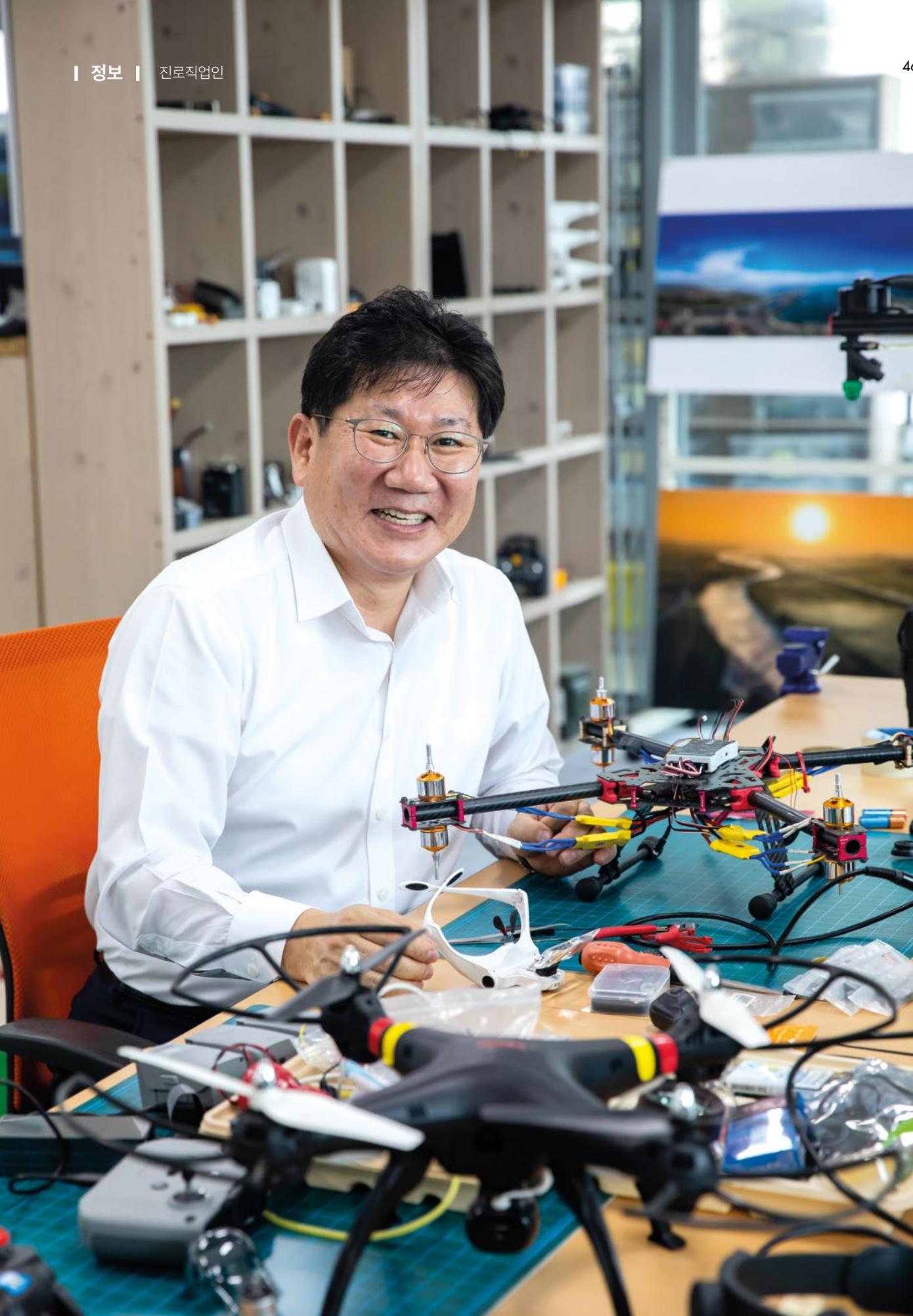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대학이 스스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은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을 1~2개 선정하여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는 지역의 모든 대학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서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면, 수도권 대학 이상의 우수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인구절벽으로 대표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5년간 대학에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학의 위기를 한계대학에 대한 정리와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지만 향후 지속하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극복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산업 기반으로서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대학자원을 직업훈련과 직업 재교육, 지역민교육,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특성화와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업중심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초광역 단위의 준공영제를 통해 직접적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연구 경쟁력이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㉔

그림 - 인구변화(2020년도)





박석중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장

하늘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드론 전문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밤하늘에 군집 비행으로 만들어낸 ‘드론오륜기’는 미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현실의 드론이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미래 모빌리티 혁명은 드론 분야로 확대되며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40년 경력의 드론 전문가 박석중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을 만나 드론 분야의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 편집실

드론이란 법적으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드론의 개념은 인간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사람과 물건의 탑승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혈액 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안전한 드론 길을 발굴하기 위해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사람이 타는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석중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이미 잠실에서 출발해 한강을 통과해 김포공항까지 가는 ‘드론 노선’이 확정돼 있으며, 내년에 시범운영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드론이 4차 산업이자, 혁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드론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야에서 2026년까지 약 17만 4,0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 분야에는 드론 설계, 제작, 조종, 정비, 활용 등 다양한 직무가 있다.

드론은 분야와 용도에 따라 민간에서 활용되는 취미·레저용 드론과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산업용 드론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용 드론은 씨뿌리기나 방제 활동, 비료 살포 등에 쓰이는 농업용 드론, 택배에 쓰이는 화물용 드론, 소방용 드론 등이 있다. 소방용 드론은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화재와 폭발사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수색 활동이 곤란한 산악 지형과 수변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드론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박석중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드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 즉 비행의 안전성, 비행 기술, 비행 지속 시간 등 드론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드론교육지도사1급, 드론정비1급, 드론촬영1급, 드론수직이착륙1급, 드론스마트팜1급, 드론항공측량1급, 멀티콥터2종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드론 전문가이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사단법인에서 드론 제작, 조종, 촬영, 정비, 교육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다음은 박석중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드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중학교 시절 처음 무선조종(RC)비행기를 취미로 시작해서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2013년경 D사의 멀티콥터 제품을 접하고 드론에 푹 빠졌다. 2014년 안정적 제어와 카메라, 위치정보시스템(GPS) 센서 등과 결합하며 융복합시대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에 몰입했다.

현재 드론 분야에서 하는 일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협회장으로 회원과 회원사를 지원하는 기본업무 외에 드론 개발 연구와 드론 활용산업, 무인 이동체 전문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드론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6년 평택 7살 어린이 실종 사건이다.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 된 사건이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드론으로 일주일간 평택 인근을 수색했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드론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감시, 방역, 구조, 통제, 설계, 보안 등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정찰 및 감시할 수 있고 투입 인원도 줄일 수 있어야 하지만, 비행에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고 취득정보에 대한 공익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드론이 떠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겼다면 바로 추락이다. 그러다 보니 안전성을 계속 검증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박석중 (사)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그동안 비행의 안전성, 비행 기술, 비행 지속 시간 등 드론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나씩 제도와 정제된 기술을 개선해서 공익목적의 유용한 드론 활용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드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드론을 손으로 조종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미 드론 산업은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고, 모션을 인지하고, 여러 기종이 함께 군집을 이뤄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와 정비개발 분야다. 드론 산업에서 융복합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센서 인공지능, 제어부의 인공지능 등 드론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응용하고 있어 급성장 중이다.

드론 교육을 받을 때 주의할 부분은?

빨리 회전하는 드론 프로펠러에 다치는 사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드론 사고는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가장 많다. 드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해 드론을 운용

해야 한다. 1kg짜리 드론의 주행거리는 7km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드론 기체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능력 교육은 안 받는다. 카메라가 끊어져도 좌표만 보고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 보통 100m 높이에서 드론 1kg짜리가 자유 낙하하면 지상에 받는 충격량은 2톤이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비상대처하고 드론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드론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들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현재 드론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악조건이나 기상악화 상황, 비가시권(2~10Km)에서 주로 운영되는데, 드론 국가자격증 1종(운용범위 : 가로 40m 세로 80m 높이 30m)을 취득해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운용능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에 기업은 드론 인력난을, 자격증 취득자는 구직난을 겪고 있다.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자만 늘어나고 구직을 못하다 보니 다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학원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드론 분야에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드론 활용 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촬영 운용, 카메라, 편집, 독도법, 항공안전법 등을 공부하고, 드론 제조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공역학, 소프트웨어(C언어), 재료·전기공학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드론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상상력과 호기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도전하기 바란다.

앞으로 계획은?

중국이 드론을 날리는 산업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창’이라면, 한국은 드론 안전분야를 주도하는 ‘방패’로 세계 시장에 우뚝 서야 한다. 안티드론시스템과 드론국제자격증 기준을 주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법촬영, 도청, 공격 등 불법드론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시스템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여러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 활용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복제가 불가해 그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②

TIP BOX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 자격증 시험 국토교통부는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이 250g일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250g을 초과하는 경우 드론자격증이 필수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한 국가 자격시험으로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종류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1~4종까지 4가지로 분류한다. 1~3종의 시험절차는 학과(필기)시험과 비행(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4종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관련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의 2022년도 상반기 대학 교육편제단위 조사(2022.3.10. 기준)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에 드론과 관련한 학과는 총 97개다. 가톨릭관동대학교(무인항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드론융합과), 경주대학교(소방방재드론학과), 광주대학교(사진영상드론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드론학과), 청주대학교(국방안보드론학과), 한국항공대학교(스마트드론공학과) 등

하늘을 나는

드론을 만나보아요!

국립항공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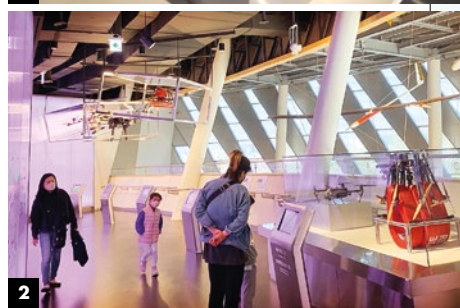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라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여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인근에 있는 박물관은 항공역사, 항공생활, 기획전시, 야외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1층부터 3층까지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항공 분야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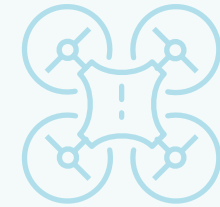
2층 '항공레저스포츠관'에서는 '드론 레이싱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하다. VR 장비를 착용하고 18개 통과지점을 지나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레이싱 게임이다. 드론의 대표적 동작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제 드론과 같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3층 '항공생활관'에서는 해상 구조용 드론, 소방용 드론, 농업용 드론, 산업용 수소전지 드론, 탐사용(항공 촬영) 드론 등 5가지 드론을 만나볼 수 있다.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며, 도슨트 프로그램도 이용하여 항공 분야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77 (공항동 1373-5번지)
- 이용 문의 02-6940-3198
- 신청방법 국립항공박물관 누리집(www.aviation.or.kr)



- 1 탐사용(항공 촬영) 드론
- 2 전시장
- 3 드론레이싱 VR 체험프로그램



미래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드론의 미래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곳에 주목해보자. 드론 조종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다. 특히 드론은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없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드론을 가까이에서 보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

drone

광주 북구 드론공원

주말엔 드론 날리러 가자! 드론공원 주말체험 교실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는 드론 교육과 관련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기초체험반', '드론입문반', '항공촬영반' 총 3개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기초체험반에서는 드론 기초를 배우는 과정으로 기초이론은 물론, 드론 조종 실습을 할 수 있다. 드론입문반은 기초체험반 수료자, 드론 조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센서드론의 기초이론과 조종교육을 진행한다. 항공촬영반에서는 드론입문반을 수료했거나 자격증 취득이 목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촬영 이론·실습 및 드론 영상 편집 교육이 이뤄진다.

실내에서 드론 이론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야외에서 드론 조종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주시 북구는 올해 12월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공원'으로, '광주 시민의 숲' 안에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일원
- 교육문의 드론공원 안내센터
062-521-7034
- 신청방법 광주광역시북구 드론비행연습장 누리집(bukgu.gwangju.kr/index.es?sid=b9)

- 1 드론 조종 실습 모습
- 2 드론 축구 모습



고려 삼별초의 마지막 격전지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2013년 10월 제주도 향파두리성(사적 제396호)에서 고려 시대 철제 갑옷 파편과 무기류가 발굴됐다. 이곳은 약 740년 전 고려 특수 정예 부대 삼별초가 고려·몽골연합군에 맞서 싸운 최후의 격전지였다. 발굴된 갑옷은 어느 병사의 것이었을까. 흔적만 남은 옛 성터에 서서 고려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글·사진_김혜영 여행작가

“

토성 위에 올라가면
멀리 제주 시내와
애월 바다, 한라산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

두려움과 희망의 땅이었던 제주

1231년(고려 고종 18)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정복한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다. 고려는 이듬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에 맞섰다. 그러나 강화 천도 39년 만인 1270년(고려 원종 11년), 고려는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개경 환도를 반대 한 삼별초는 병사를 이끌고, 진도를 거쳐 제주로 내려왔다. 1271년 삼별초 대장 김통정은 제주 애월에 지명을 딴 ‘향파두리성’을 쌓고, 2년 반 동안 여몽연합군에 대항했다. 1273년 최후 결전의 날, 남은 병사와 한라산 중턱 붉은오름으로 피신한 김통정은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로써 강화, 진도, 제주로 이어진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끝났다.

향파두리성 내 빈 창고에 누군가 적어 놓았다.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제주. 두려움과 희망은 늘 바다 넘어서 밀려왔다. 1271년’. 삼별초가 제주에 도착했던 그해, 어느 병사가 썼을 법한 글이다. 어쩌면 이 병사는 삼별초의 운명을 짐작했을 지도 모르겠다.

삼별초가 전멸한 뒤, 제주는 약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년) 최영 장군이 몽골인 목동인 목호를 몰아내고 나서야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1 돌덩이만 남은 향파두리 내성 터. 성터 옆으로 제주올레 16코스가 지나간다.
- 2 5월에는 황보리를 감상하며 토성 둘레를 걸을 수 있다.



유유자적 항파두리 토성 산책

항파두리성은 흙으로 외성을 쌓고, 돌로 내성을 쌓은 이중성이다. 내성 안에 관아와 부대시설을 두고, 삼별초군과 그 가족이 살았다. 내성 터에서 무기류, 청자, 청동 바늘, 철제 솥, 옷판, 고누판 등 1,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놀이 도구를 통해 긴장과 휴식 사이를 오갔을 삼별초군의 일상을 짐작해본다.

외성인 토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 언덕과 하천을 따라 쌓았는데, 둘레 3.8km, 높이 4~5m, 너비 3~4m에 달한다. 토성 위에 올라가면 멀리 제주 시내와 애월 바다, 한라산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김통정이 이곳에 항파두리성을 지은 이유를 알 것 같다. 토성 안은 옛 전장 터였던 사실을 잇을 만큼

고요하다. 이따금 비행기가 정적을 깰 뿐이다. 토성 안팎을 오르내리며 울창한 소나무 숲, 광활한 풀밭, 누런 황금보리밭, 꿀꽃이 만발한 감귤밭, 싱그러운 차밭을 만난다. 넓디넓은 풀밭에서 네 잎 클로버를 찾고, 숲길에서는 산딸기를 따 먹는다.

보물찾기하듯 토성 일대에 남아있는 삼별초 관련 장소들도 찾아본다.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에 쫓겨 토성을 뛰어넘을 때 밟은 자리에서 우물이 솟아났다는 ‘장수물’, 삼별초 병사들이 마셨다는 ‘구시물’, 장교들이 마셨다는 ‘웅성물’, 활 연습 때 표적으로 사용했다는 ‘살 맞은 돌’, 건물의 주춧돌로 사용된 ‘돌쩌귀’ 등의 유적 등이 그것. 작년에는 사라진 네 개의 성문 중 동문으로 추정되는 문 터가 발견됐다.



3

항파두리성의 인생 사진 포토존

몇 해 전부터 항파두리 내성 터 둘레에 꽃밭이 조성되고, ‘나 홀로 나무’ 포토존이 SNS에 소개되면서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토성 바깥 비탈면에 홀로 선 아름다운 소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실제 풍경은 실망스러워도 사진발만큼은 인정할 만하다.

항몽유적지 휴게소(매점) 뒤쪽 꽃밭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꽃이 핀다. 2~4월에는 유채꽃과 청보리, 5월에는 꽃양귀비와 황보리, 6월에는 수국, 7월에는 해바라기, 8월에는 코스모스, 9월에는 메밀꽃이 차례로 관광객을 맞는다. 휴게소 건너편 ‘토성길’ 이정표를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액자 포토존이 나온다. 액자 안에 토성과 제주 바다를 담을 수 있다. 액자 뒷 계단이 토성길과 연결된다.



- 3 5월에는 항몽유적지 주차장 뒤편 꽃밭에서 꽃양귀비를 볼 수 있다.
- 4 관광객이 항파두리성 나 홀로 나무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5 삼별초 병사들이 활쏘기 훈련할 때 표적으로 사용했다는 ‘살 맞은 돌’

삼별초의 방어벽 애월환해장성

1270년 고려 조정에서 삼별초가 제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애월 바닷가에 돌로 성을 쌓은 것이 환해장성(環海長城)의 시초이다. 삼별초가 입도한 뒤에는 환해장성이 도리어 삼별초의 방어벽이 되었다. 환해장성은 1845년(조선 헌종 11년)까지 외적을 막는 용도로 계속 지어졌다. 무너지면 보수해가며 몇 대에 걸쳐 짓다 보니, 제주 해안선의 반인 120km를 두르게 됐다. 어떤 이는 환해장성을 중국 만리장성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 환해장성이 무관심과 무분별한 개발에 밀려 상당 구간이 훼손됐다.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곳은 온평리, 북촌리, 애월리, 고내리 등 28곳이다. 애월 환해장성도 약 360m 구간만 남아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해안도로나 제주올레에서 정체 모를 돌담을 발견한다면, 환해장성일 가능성이 높다. 관심 어린 눈길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의 064-710-6721
내성 터 및 전시관 관람 시간
매일 10:00~17:00, 무료 관람, 해설사 근무, 외성은 24시간 개방

메타버스로 만드는 우리들의 교실

글_이진명 경기 중흥초등학교 교사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선생님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버스? 선생님 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지쳐갈 때쯤, 메타버스를 만났다. 줌(Zoom)으로 수업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였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메타버스를 소개하자 아이들은 당장 만들고 싶다고 눈빛을 반짝였다. 그렇게 우리의 메타버스 교실이 열렸다. 처음에는 메타버스 교실에서 간단한 온책읽기 활동부터 시작했다. 메타버스를 경험하며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메타버스의 기본 기능과 활용법을 익힌 후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선정한 주제는 ‘통일’이었다. 당시 통일프로젝트를 교사인 내가 나름대로 계획했었는데, 아이들의 메타버스 활용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학급 친구들을 초대하여 아이들이 직접 진행하는 통일 방탈출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방향이 정해졌다. 아이들이 직접 문제와 공간을 만들고,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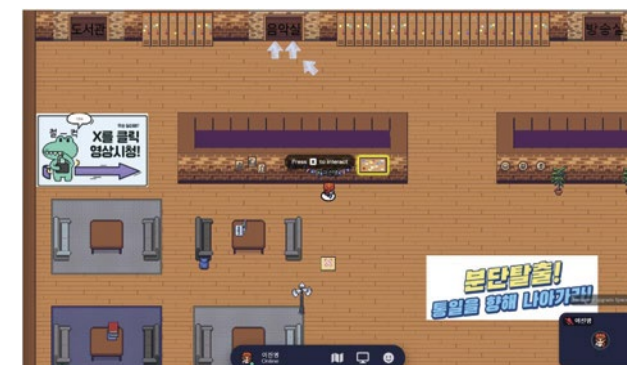
아이들을 초대하여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던 일이기에 매일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부하고, 토론했다. 우선 아이들이 자신이 있는 분야별로 모둠을 나누었다. 메타버스 제작팀, 스토리 기획팀, 퀴즈팀, 내용조사팀으로 나누고, 회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었고, 메타버스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 기쁨을 느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학교와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고, 도서관, 음악실, 방송실, 컴퓨터실, 보건실로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다. 방별 특징을 살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어야 풀 수 있는 통일 책 문제, 음악실에서는 음악을 들어야 풀 수 있는 통일 음악 문제를 내기로 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봐야 풀 수 있는 통일 방송 문제, 컴퓨터실은 컴퓨터로 검색해야 풀 수 있는 통일 검색 문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실도 만들었는데, 이곳을 방탈출에 실패한 아이들이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아재 개그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메타버스의 겉모습만 보고 게임과 비슷하다고 우려하던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도가 높아졌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노력해서 만든 메타버스에 다른 반 아이들을 초대해 행사를 진행했을 때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다. 어렵고 뻘하다고 생각했던 통일교육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다. 함께 문제를 풀고 숫자를 조합해 방탈출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내용을 익히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메타버스를 막연히 미래세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구축해 보면서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

1 방탈출 메타버스 도서관·음악실·방송실·컴퓨터실·보건실에 방탈출을 위한 문제가 숨어있다.



메타버스 세계여행을 떠나다

그 뒤 세계여행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이번에는 6학년의 다른 학급도 참여했다. 여권을 만들고,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세계여행을 했다. 세계여행 전문가와 온라인 진로멘토링도 진행하고, 소감을 세계지도에 붙여 전시했다. 각국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메타버스에 전시하여 결과물을 나누었다. 아시아는 아시아 분위기로, 유럽은 유럽의 분위기로 메타버스가 만들어졌다. 각 학급에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는 다른 학급의 메타버스에도 들어가 서로 잘한 점을 칭찬해 주기도 했다. 경험이 확장되면서 아이들은 흥미와 함께 교과 내용도 익힐 수 있었다.

수업뿐 아니라 별도의 동아리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운영했다. 학교 유튜브 영상제작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전시하는 영상회도 메타버스로 진행했다. 영상회는 아이들이 직접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다. VR안전지도도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서 학교에 오랜만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공간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주변을 VR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 배치하고, 관련 퀴즈를 풀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고 만든 영상들이기에 의미가 더 컸다.

메타버스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나도 함께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옮기게 된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가 특색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러 학년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은 방역수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간을 메타버스로 옮기

면 가능할 것 같았다. 이름하여 메타버스 학생주도 자율동아리. 공간을 가상세계로 옮기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자율동아리의 목표는 하나였다. 코로나19가 빼앗아 간 자율동아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매일 밤을 새워가며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아이들에게 안내할 홍보자료도 만들었다. 각 학급 담임 선생님들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교사 설명회도 열었다. 전교 자치회 임원들과 진행 방향에 대한 협의회도 거쳤다. 사실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취지와 내용을 듣고 나자 어리둥절한 눈빛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설렘었고, 선생님들이 설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대부분 구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보냈고, 선생님들도 아이디어를 보냈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 관점을 바꾸고 나니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지키며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방법이 있었다. 유튜브 영상 제작 동아리, 방탈출 동아리, 칼림바 연주 동아리,

2 VR안전지도 메타버스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VR영상과 안전영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3 메타버스 안내 포스터

큐브 동아리, 식물 가꾸기 동아리 등 많은 동아리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동아리 중 학생자치회의 승인을 거친 13개의 동아리부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1층 현관에 전시하고,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포스터 아래에 아이들이 이름을 적도록 하여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고 있다. 동아리별로 담당 선생님도 배치했다. 메타버스에서는 매주 목요일 방과 후에 자율동아리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이들은 학교 후 각자 자율동아리 메타버스에서 다시 모인다. 이로써 메타버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모두 처음 시도해 보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동아리를 재개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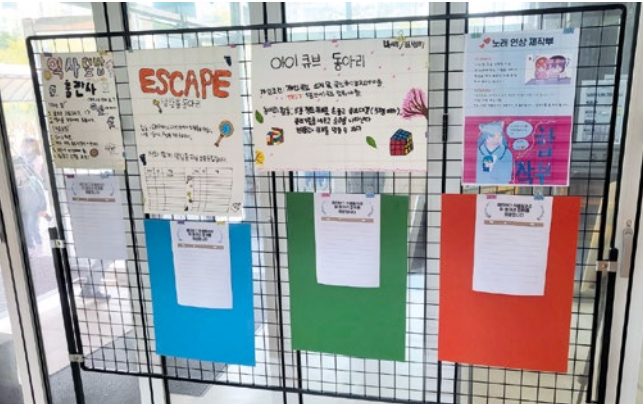
메타버스에서는 동아리별로 방도 만들어 주고, 그 방도 동아리별 테마에 맞추어 꾸며주려 한다.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동아리방을 만들 듯이 말이다. 동아리별 로고도 만들고, 전시회도 메타버스에서 개최하여 많은 사람과 활동 결과를 수시로 나눌 예정이다.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여 등교했을 때 받아가고 집에 가서는 활동 방법을 메타버스에서 보며 배워나갈 것이다.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온라인이기에 유명하신 분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메타버스 자율동아리는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하는 기쁨과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학교에 에듀테크 교사 동아리도 만들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태블릿 PC를 활용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아이들은 함께 하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메타버스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다른 선생님께 소개할 때마다 당부드리고 있다. 메타버스를 수업 목표에 맞게 구현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해서 만들어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아이는 졸업하며 우려하는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다. “게임처럼 보이지만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공간을 만들면서 공부한 건 교과서보다 훨씬 멋진 공부였어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 단순 흥미가 아닌 수업의 수단으로 접근할 때 메타버스가 수업에서 의미 있게 될 것이다. ㉠

4 1층 현관에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FOCUS 0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글_ 김인순 명예기자(장흥 장평중학교 교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학교의 위기 극복 노력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사가 확진되는 경우, 수업 교체에 따른 교사 간 부담감이 가중된다. 몇몇 학교는 원격수업 실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면대면 수업이 주는 생생함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과 학교가 혼신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전문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학교 수업 결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학교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청에서도 퇴직교사를 포함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한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문직 직원들의 학교 지원은 고등학교에서 더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원격수업 관리 등을 하는 등 현장에서 요청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고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다 바빠다는 교육청 업무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참가한 전문직 직원들도 학교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전남교육청 전문직원 100여 명, 학교 수업 지원 나서

특히,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 차용훈 장학사는 “장학사는 현장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다.”라며 “오랜만에 아이들

과 함께하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듣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몇 시간의 수업 지원으로 학교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 뿌듯했다. 아무쪼록 이런 자발적 지원이 학교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현장 지원 소감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4.15)으로 공문 축소, 감사 중단, 교사 출장 중단,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및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하고 있다.

큰 학교의 경우 하루에 10여 명의 확진 교사가 나오면, 학교 내 교장, 교감, 교과전담, 비교과 교사들까지 보강 수업에 나서고, 그래도 부족하면 교육청에 강사를 요청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의 수업 지원은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수업의 짐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짐 지우지 않고, 교육청과 관리자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현장 교사들도



매일매일 책임져야 하는 보강 수업의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는 문 닫지 않고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학교 관리자, 수업 지원하며 선생님들의 어려움 공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더 잘 알게 된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했다.

영암 도포중학교(교장 최영민)는 ‘교장 선생님의 첫 수업’ 때, 교장 선생님께 수업을 부탁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지에 대해 교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흔쾌히 ‘꿈과 진로’를 주제로 총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최 교장의 수업에,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후문이다.

김승리(2학년 담임) 교사는 “저연차 교사들이 제공하기 어

려운 풍부한 지식과 인생 경험을 들려주신 덕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욱 집중하는 듯했다.”라며 “나이와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교단에 오르시는 용기를 꼭 닮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영민 교장은 “교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이전에, 나 역시 교사임을 잊지 않는 계기였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며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였다.”라고 밝혔다.

목포 유달중학교 문태홍 교장은 “많을 때는 하루 4시간 수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참 힘들었다.”라며 “매일 이렇게 수업하는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육 주체들의 대동단결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



혼자보기 아까워서



Q 서화영 서창고등학교 교사



벚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벚꽃은 핍니다. 비록 마스크로 얼굴의 반은 가렸지만, 교정에 핀 벚꽃 처럼 환하고 밝은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2022년 3월 벚꽃 핀 교정에서 서창고등학교 2학년부 선생님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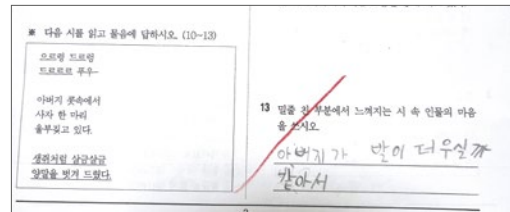
Q 김민중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하는 느낌

2학년 학생이 매주 두 번이나 자가진단검사를 하고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진단검사를 하는 느낌을 시로 쓰게 해 나온 작품입니다. 코에 면봉이 들어갈 때 잔뜩 찡그린 얼굴을 그린 걸 보니 검사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느껴져 안쓰러우면서도 실감 나는 그림에 빙그레 웃게 됩니다.

Q 김지미 학부모



웃음이 나는 아이의 시험지 오답

초등학생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단위 평가 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셨을 때 엄마가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빠 께까 봐 양말을 벗겨 준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엄마는 잔소리하면서 깨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였나 봐요. 시험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Q 동탄고등학교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4월 6일 미술 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물을 뿌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얼굴과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학생들이 2시간에 걸쳐 만든 그림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길이 40m, 폭 20m입니다. 이 그림 그리기를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동은 선생님입니다. 김동은 선생님은 광복 7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김동은 선생님은 임시정부 수립일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림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②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춘임 님

4월호에서는 [교육포커스] 칼럼의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다'라는 기사를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필자의 말씀처럼 전국 구석구석에 동지를 둔 지방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수양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와 사회 붕괴를 막는 공적 영역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시스템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사회발전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심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더불어 미래의 희망을 밝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교육백년지대계를 꼭 이루어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최민한 님

독도와 동해, 그리고 지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온라인 독도전시회를 활용하여 교육하거나 SNS로 인증하면 어떨까요? <국토 최동단 '독도'를 알아볼까?>에서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종근 박사는 지난 2021년, 김대건 신부가 그린 조선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조선전도의 모사본 2장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도 기재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온라인 독도전시회(<https://www.nahf.or.kr/dokdo/index.htm>)를 활용하여 독도 교육을 하거나 SNS로 독도 홍보 인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미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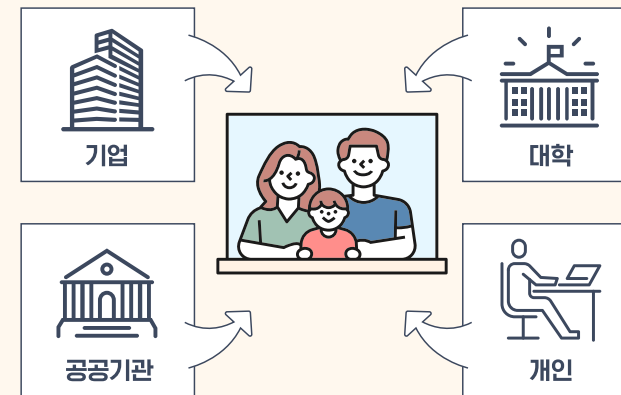
4월호는 학교 안 다양한 구성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서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신상미 선생님의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글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소설처럼 잔잔한 감동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덕분에 잊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2

EVENT	
	OOOO은 교원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1958년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65년부터 겨례의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이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교육기부란?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교육기부, 기부자 참여 방법은?



교육기부, 수혜자 참여 방법은?

